리튬전지, 에너지인터넷 시대 주도

박상진 삼성SDI 사장, 에너지 혁명의 원동력 … 자동차·ESS 1위 고수

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6월18일 앞으로 전력산업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<아날로그 전력시대>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<에너지 인터넷시대>로 변화할 것이며 리튬전지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.

박상진 사장은 6월17-22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리튬전지 국제학술대회(IMLB)에서 <스마트 에너지 시대의 배터리 리더, 삼성>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"1990년대 등장한 리튬전지가 지금의 모바일 혁신을 가능하게 한 성공요인"이라면서 "앞으로도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IT(정보기술)·자동차·전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, 경제 등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에너지 혁명의 원동력이 될 것"이라고 주장했다.

그러나 혁신적인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사용시간 연장, 가격 개선,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, 절대적 안전성과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.

박상진 사장은 "삼성SDI는 리튬전지 사업에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IT부문 외에 자동차용 전지,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등 배터리 사업의 전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18>